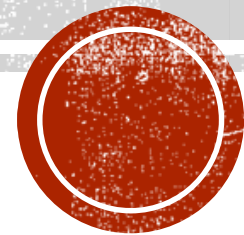


# 교양 철학 수업의 사례

## : 교양으로 접하는 철학 수업



발표자: 김동규(울산대)

# §. 1부 교양이란 무엇인가?



# 대학 시절



# 외숙부의 말씀



“난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를 그때도, 지금도 찾지 못했다. 고졸인 것에 대해 전혀 후회도 없단다. 대학 나왔다고 뽐내는 놈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 그런데 딱 하나, 대학에서 무언가를 제대로 배운 사람과 만났을 때, 그이한테서 어떤 **이질감**을 느꼈는데, 묘하게도 그게 반감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멋져 보이게** 했지. 웬지 **범접하기 힘든 무엇**이었는데, 그것 하나만큼은 정말 부럽더라구. 지금도 난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가 대학에 가면 꼭 그걸 배웠으면 좋겠다.”



# 외숙부가 부러워했던 것은?

- 전공 지식은 아니다.
- 고상한 윤리 의식 같은 것도 아니다.
- 계급적 차이를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소위 문화자본 같은 것도 딱히 아닌 것 같다.
- **교양**이다.



# 교양이란 이 아니다.

- 직접적으로 **실용적인 지식**은 아니다.
- 허영으로 가득한 **고급 취미**는 아니다.
- 전문적인 **전공 지식**이 아니다.



# 교양교육은 **의사소통 훈련**이다



우치다 타츠루 전 고베여자학원대학 교수

주요 저서: <영화는 죽었다>, <망설임의 윤리학>, <아저씨적인 사고>,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유대문화론>, <일본변경론>, <죽음과 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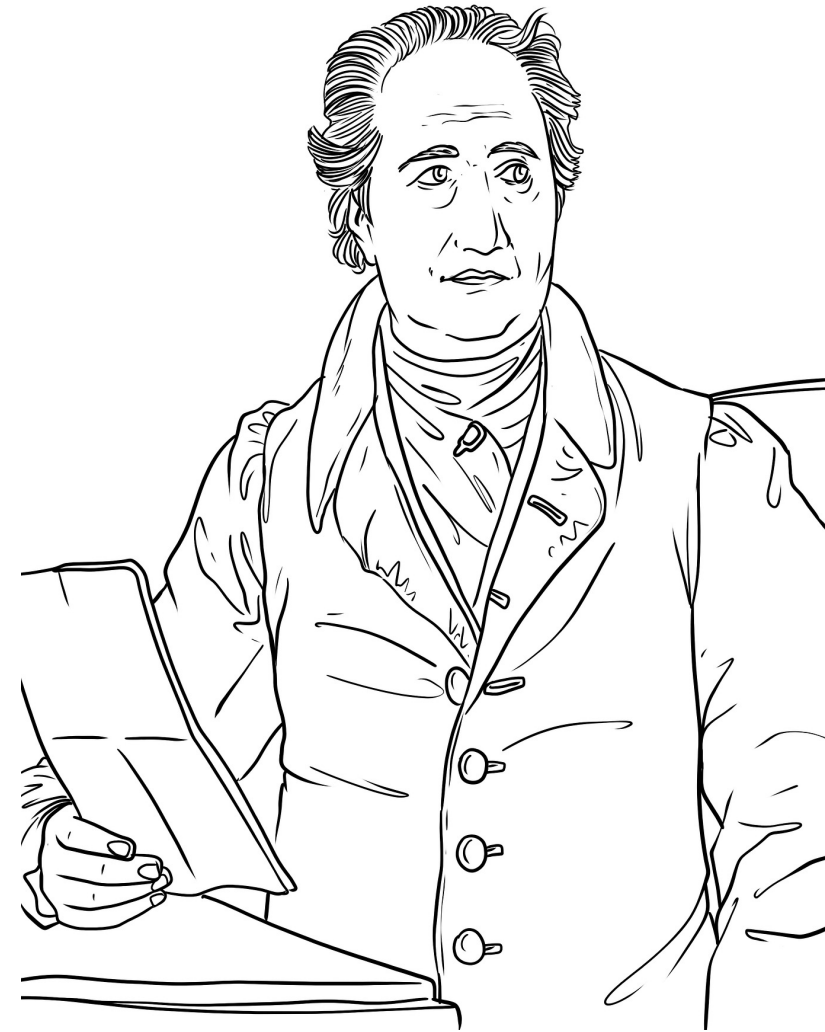
“교양교육은 요컨대 의사소통 훈련입니다. 그것도 뭔가 잘 모르는 것과의 의사소통, 공통의 용어나 도량형이 없는 자와의 의사소통 훈련이지요. ... 전공교육은 ‘내부 사람만의 파티’를 의미합니다. ‘전문용어로 대화가 되는’ 장소, 혹은 ‘통하는 걸로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 먼저 교양교육을 통해 자신과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과의 의사소통방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은어로 대화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은어로 말해왔던 것을 ‘**은어가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이해**시키지요. 거기까지 가능해지면 고등교육은 일단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우치다 타츠루, 『교사를 चु추게 하라: 당신과 내가 함께 바꿔야 할 교육 이야기』, 박동섭 옮김, 민들레, 2018. 88, 91쪽.





1. 괴테와 발레리에 익숙한 대학생이 코딩과 미시경제에 익숙한 친구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2. 1950년대에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단절을 두고 스노(Charles Percy Snow, 1905-1980)는 『두 문화』라 명명
3. 학계에서 요즘 언급되는 통섭, 융합, 학제 연구가 사실은 모두 교양교육의 이념에 뿌리 내린 것이라 말할 수 있다.
4. 교양교육은 대학 교육의 처음이자 끝이다.



## 교양 있는 사람이란?



- 낯선 타인과 진정성이 오가는 대화를 원하는 교양 있는 사람은 힘(돈, 권력, 명예, 지식 등)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히 자세를 낮출 줄 아는 사람
- 아무리 서로가 낯설고 달라 보여도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연민의 밧줄로 묶인 공동 운명체임을 늘 기억하는 자
- 전문분야로 분화되기 이전의 시원(始原)의 철학자  
; 철학이 만학의 즐기세포인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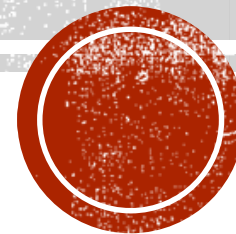


# §. 2부 교양으로 접하는 철학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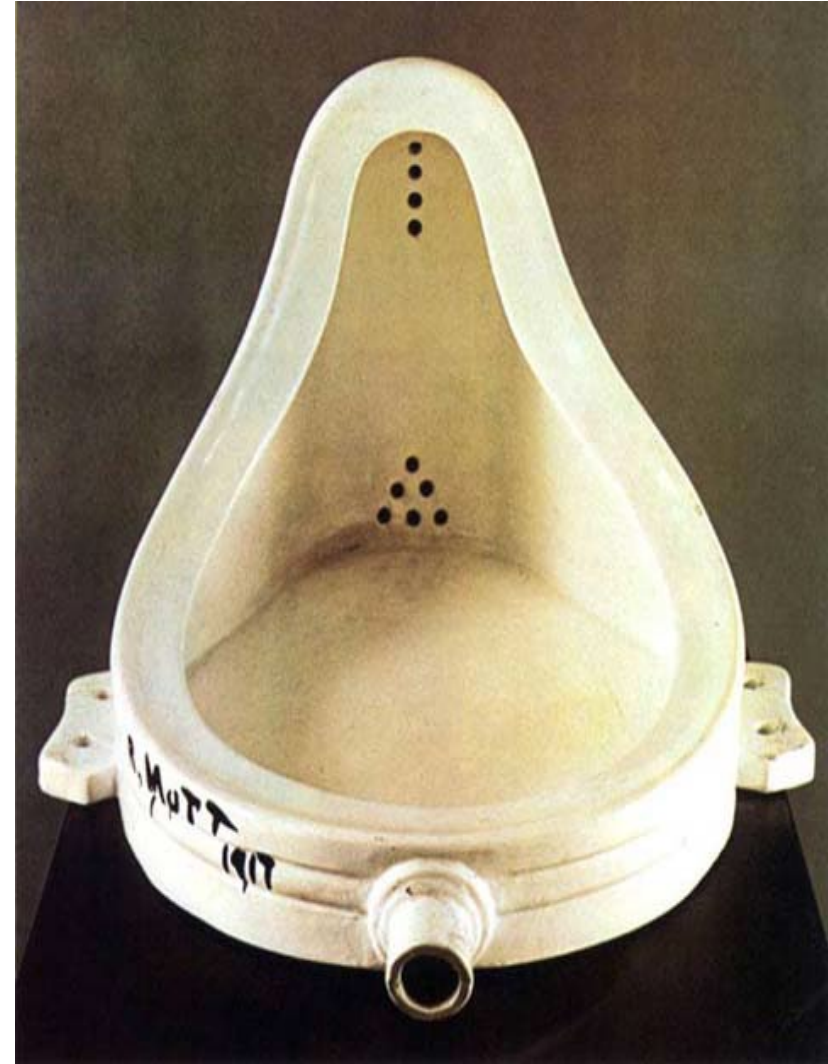
# 예술 작품의 근원

**M. HEIDEGGER**



# 이것은 무엇일까?

본질이 유래하는 곳 - 샘, 근원



#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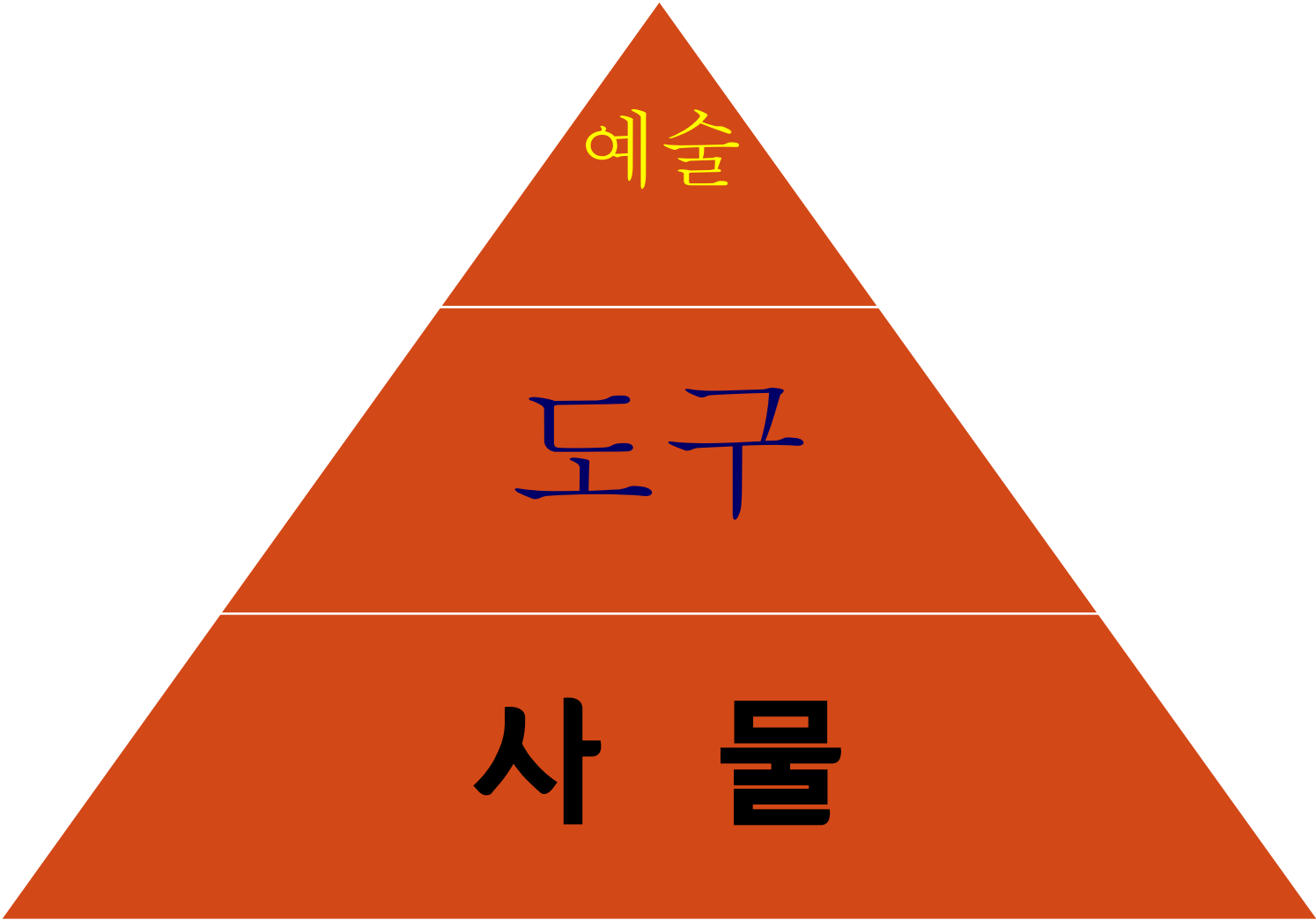
-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있고 없음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적 접근방식 - 존재론
- 하이데거의 예술철학 - 존재론적 예술론



# 전통적인 예술작품론

- 예술작품은 “제작된 사물”이다
- 예술작품은 **사물, 도구 이외의 그 무엇** 을 담고 있다
- 알레고리(allo agoreuei), 상징(symballein)
- 사물적 토대 위에 기초한 예술론
- 사물<도구<예술





예술

도구

사 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  
터 앞 의 설치 미술  
프랑크 스텔라, **아마벨**  
**(Amabel)**, 1996



# 작품일까? 고철일까?

“16억 원짜리 이 작품을 보고, 지나는 사람들이 흉물이라고 비난하며  
당장 치우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마벨’의 설치가 진행 중이던  
어느 새벽에는 고철장수가 설치하다 만 작품 몇 덩어리를 폐철인 줄 알  
고 싣고 가버려 경찰까지 동원되어 법석을 떤 끝에야 찾아내는 우여곡  
절을 겪기도 했다.” : 글·사진 장다운 보름산미술관 소장

# “예술은 바이러스다”

- 은유(Metaphor)의 두 가지 조건
  1. 진부하지 않은 ‘참신성’
  2. 낯선 사태의 병치에도 발생하는 ‘유의미성’
- 바이러스 은유의 신선도: 만물의 영장과 미물(微物)로 간주되는 양극단이 만난다는 점

# 바이러스의 고유성

1. 감염성
2.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하는 기생성
3. 증식에 있어 세포분열이 아닌 조립(assembly) : 생명과 비  
생명의 사이존재
4. 자신의 유전물질을 다른 세포에 전달하는 이식성

# 예술 바이러스의 특성 1

- 강한 전염(傳染)력
- 예술작품의 아름다움과 매력: 전염력의 원천
- 동시대 사람들 사이로 전염, 역사적으로 전승
- 플라톤의 『이온』: 마치 자석에 연이어 붙어있는 쇠조각들처럼, 뮤즈의 영감이 시를 창작한 시인에게, 그것을 낭송하는 음유 시인에게, 또 청중들에게 전염된다

# 예술 바이러스의 특성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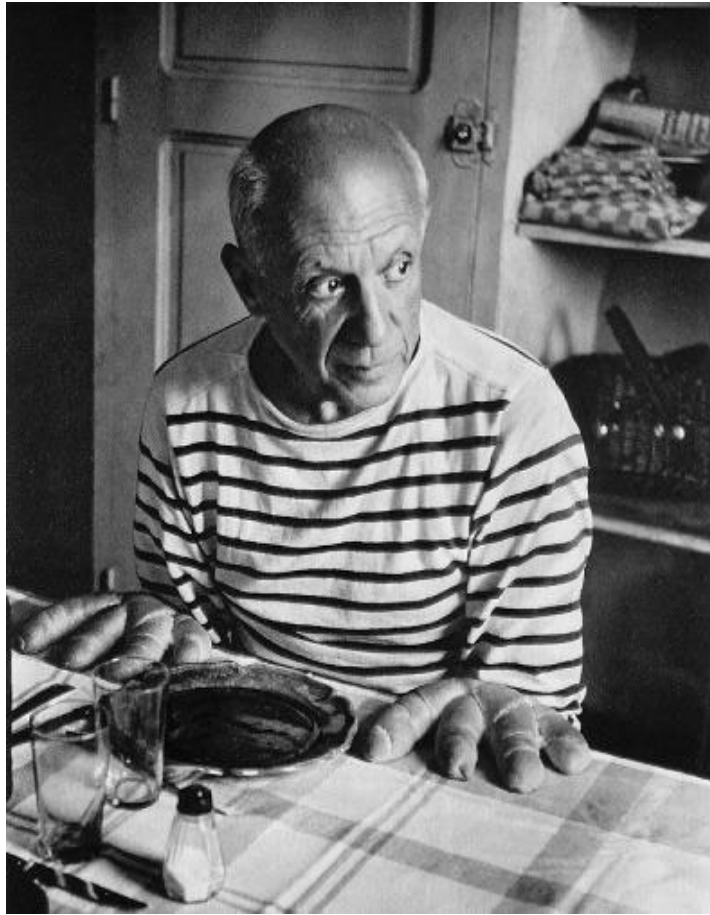
- 숙주인 인간에 ‘기생(寄生)’
-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숙주, 인간이 없다면 예술작품은 ‘죽은 사물’에 불과
- ‘살아있는’ 예술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 가운데 하나는 숙주인 감상자
- 작품을 이해하고 기억함으로써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감상자를 만날 수 없다면, 예술작품은 새롭게 再生할 수 없다.

# 예술 바이러스의 특성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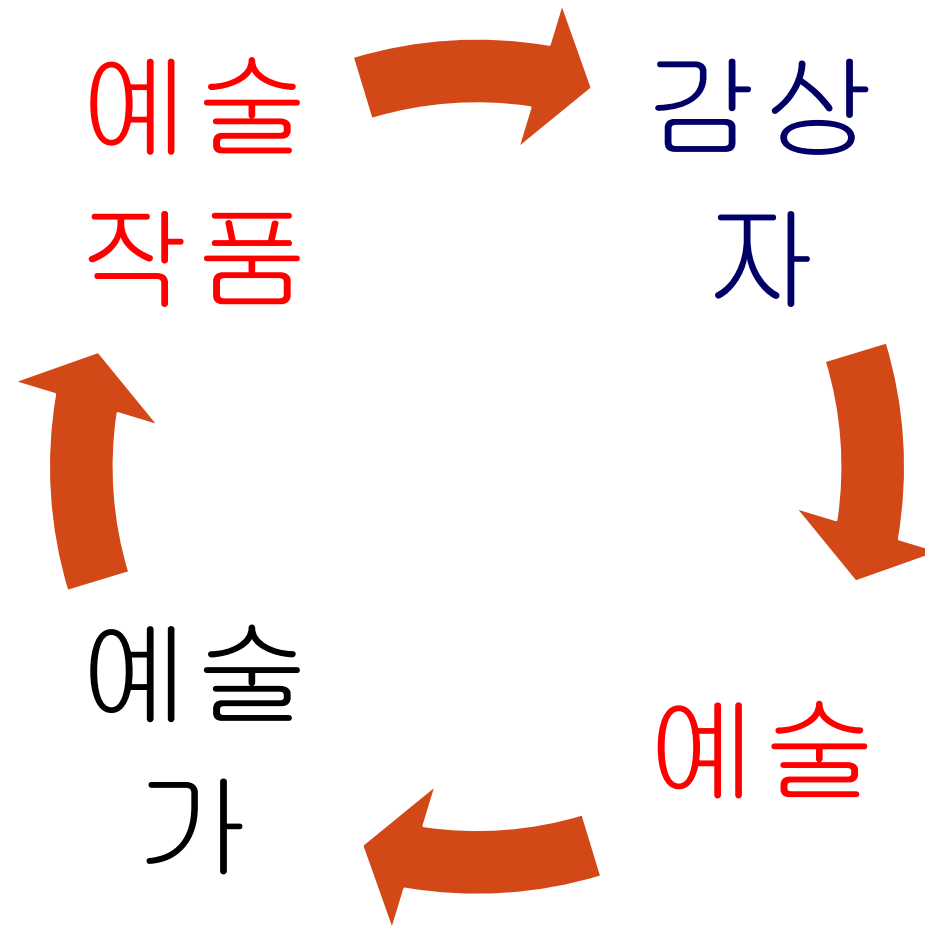
- 감염된 인간을 ‘변모(變貌)’시킴
- 예술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은 뒤바뀐다. 작품을 만나기 전의 세계와 만난 다음의 세계는 다르다. 예술을 통해 열린 새로운 세계는 이전까지 감춰져 있던 세계다.
- 예술작품: 은폐된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해맑은 눈’

예술가는 작품의 근원이고 작품은 예술가의 근원  
이다

하나는 다른 것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순환



# 예술이란?

- “진리의 작품-안으로의-정립

(das Ins-Werk-Setzen der Wahrheit)(GA5, 74) ”

- 진리 - **Aletheia**





예술이란 다른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토끼굴이다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기 전  
과 그 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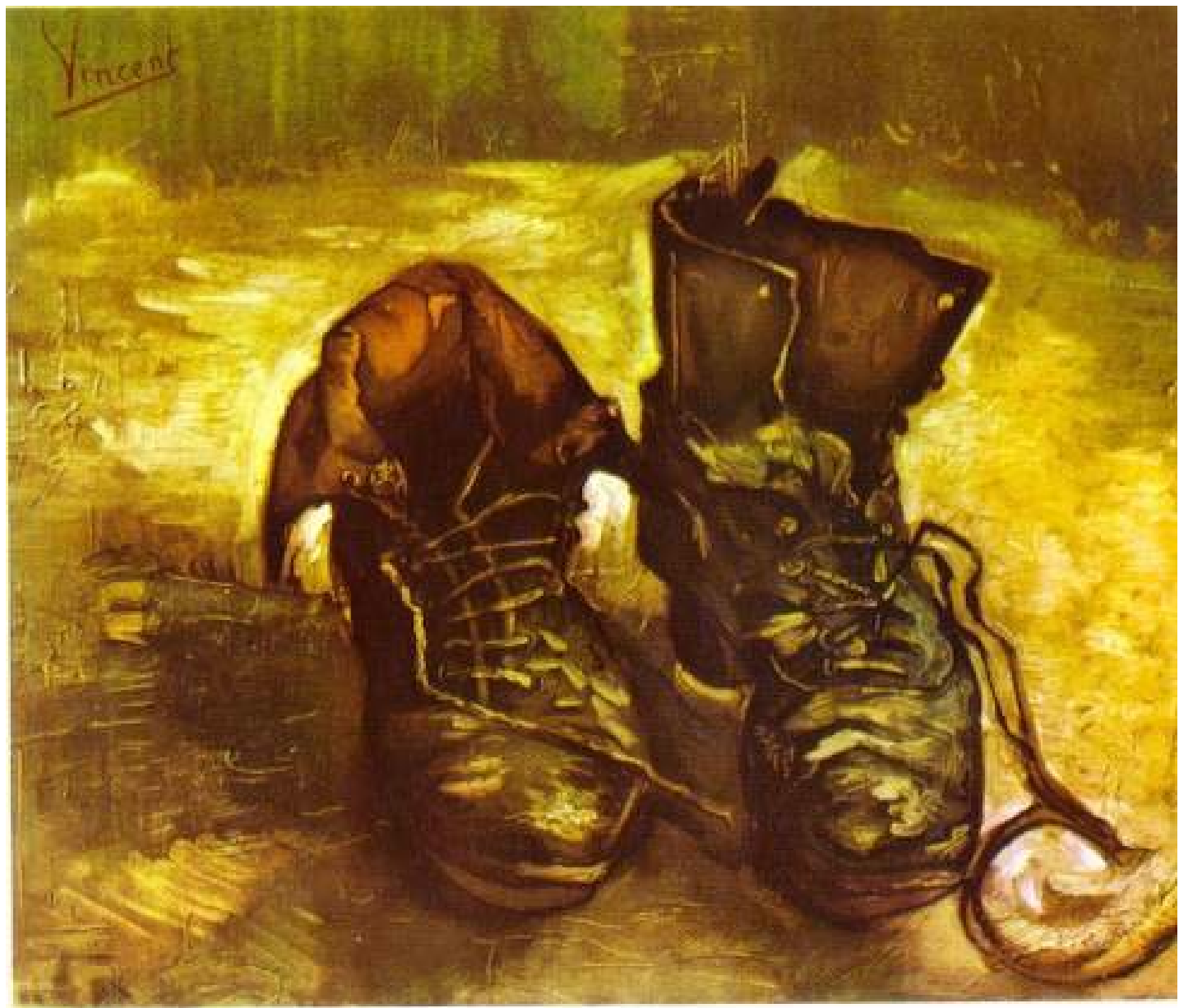


# 토끼굴

(RABBIT-HOLE)

- 보수적 시선 : 제 2의 천성, 관성의 법칙
- 기존의 시선을 깨트리려면 강렬한 매혹 필요
- 매혹적인 예술성: 작품 내부에 구축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매력 포인트
- 비유컨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토끼굴, 친숙한 세계를 떠나 완전히 “이상한 나라 (Wonderland)”로 인도해 주는 블랙홀





# 현상학적 기술

“구두라는 도구 밖으로 드러난, 내부의 어두운 틈으로부터 들일을 하러 나선 이의 고통이 응시하고 있으며, 구두의 실직한 무게 가운데는 거친 바람이 부는 넓게 펼쳐진 평탄한 밭고랑을 천천히 걷는 강인함이 쌓여있고, 구두 가죽 위에는 대지의 습기와 풍요함이 깃들여 있다.



구두창 아래에는 해 저물 녀 들길의 고독  
이 저며 들어 있고, 대지의 소리 없는 부  
름이, 겨울 들판의 황량한 휴한지 가운데  
서 일렁이는 해명할 수 없는 대지의 거부  
가 떨고 있다.



이 구두에 스며들어 있는 것은 빵의 확보를  
위한 불평 없는 근심, 다시 고난을 극복한 뒤  
의 말없는 기쁨, 임박한 아기의 출산에 대한  
조바심,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의 전율이  
다. 이 구두는 **대지**에 귀속해 있으며, **촌 아낙**  
**네**의 **세계** 가운데서 보존되고 있다.”



# 세계

# 대지

빛

어둠

질서, 의미

무질서, 무의미

개방, 드러남

폐쇄, 은폐

다가옴

물러남

역사,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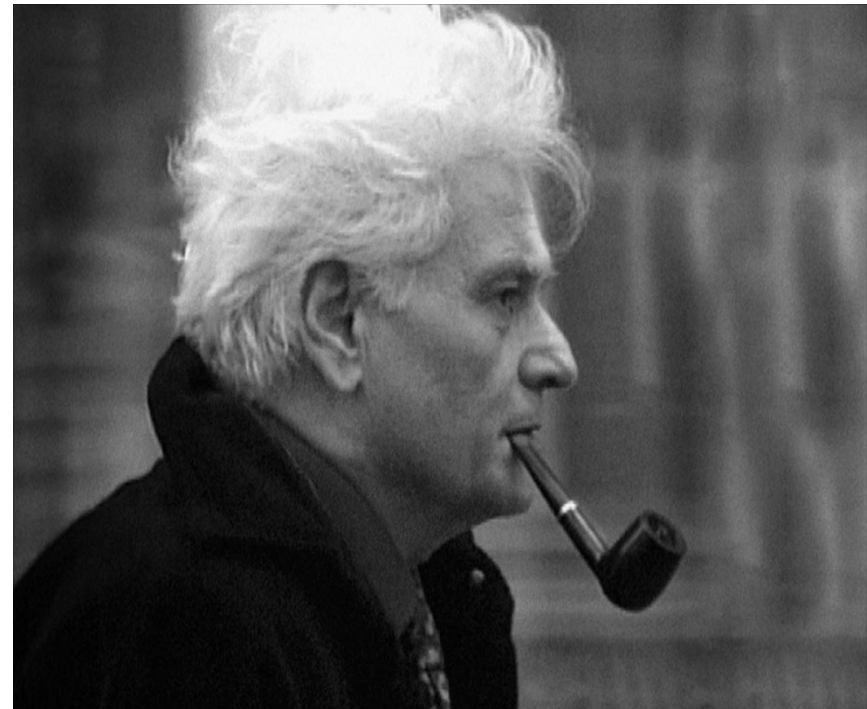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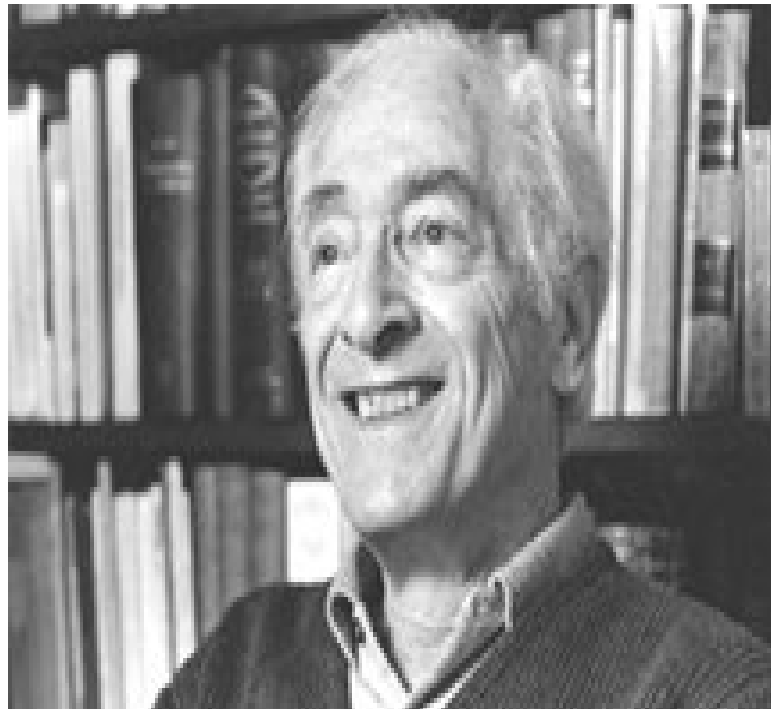
자연

이다

아니다



누구의 신발?



# Meyer Schapiro (1904 – 1996) 의 반박

- 'The Still Life as a Personal Object—A Note on Heidegger and van Gogh'
- “그건 시골 아낙네의 신발이 아니야, 역사적인 고증을 해 보면, 도시 거주의 남자, 고흐의 신발이란 말이지.”

# 데리다의 비판

“둘 모두 틀렸거든, 너희 모두 작품을 무엇인가에 소속시키려 하고 있잖아. 작품은 그렇게 깔끔하게 소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재현으로 작품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너희는 똑같은 우를 범한 거야.”

# 예 술

- 진리의 사건
- 시짓기(**Dichtung**) ; 건립(**Stiftung**)
  - 선사(**Schenkung**)
  - 토대 마련(**Gruendung**)
  - 시작(**Anfang**)

